

세계 100대 유니콘 중 플랫폼사 절반... “韓 진출 대비해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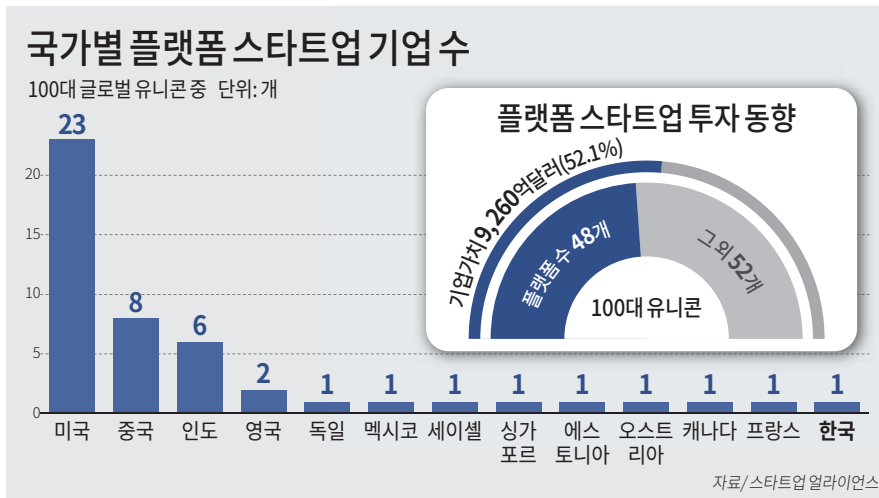
플랫폼사 48곳, 기업가치 9260억弗
美 23개, 中 8개... 한국 1개 불과

“플랫폼 비즈니스, 국경 한계 없어
국내 법 지원 강화, 경쟁력 키워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플랫폼 기업이 숫자나 가치 측면에서 모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영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국경이 없어 언제든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과 토종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플랫폼편’에서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은 48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 분야는 4곳에 그쳤다.

또 이들 플랫폼 기업은 100대 유니콘 전체 기업가치 1조7433억 달러의 53.1%인 92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CB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 기준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은 1248개로,

이들의 기업가치는 3조9893억 달러 수준이다.

100대 유니콘 안에 드는 플랫폼 기업은 국가별로 미국(23개), 중국(8개), 인도(6개), 영국(2개)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독일, 멕시코, 세이셸,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는 1개씩이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 유니콘이 13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소비자&리테일(11개), 엔터프라이즈 기술(10개), 미디어&엔터(8개), 제조(4개), 헬스케어(2개) 순이었다.

보고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국경의 한계가 없어 전 세계의 경쟁력있는 플랫폼들이 언제든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유니콘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플랫폼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경이 없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플랫폼사, 해외 플랫폼사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인터넷 소매업으로 대변되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비 높은 반면, 법적 지원 부문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어진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할 해외 사업자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시장 도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6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부문에서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수준을 평가·측정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미래 준비도에서 1위인 반면 지식은 10위, 기술은 12위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규제 26위, 자본이 24위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요인 중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법적 지원은 52위로 최하위권이 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오스트리아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세계 71개국서 300여개 기업 참여

중기중앙회가 전세계 한인경제인들과 힘을 모아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윅타) 소속 전세계 71개국, 150여개 지회의 한상경제인들이 모이는 행사다.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28회 대회는 유럽 비즈니스 중심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300여개 기업, 376개 부스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참여는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과 한상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응원하는 ‘글로벌 윈윈호출항식’ 이후 월드윅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이번 행사에서 명예대회장을 맡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에서 ‘KBIZ관’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엄선해 우수 중소기업 25개사의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와 중소기업 제품을 현지에서 홍보한다.

전시상담회는 사흘간 열리며 현지에서 K-뷰티, K-푸드 등으로 구성된 KBIZ관에는 다양한 현지 바이어와 참관

객이 방문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알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대한민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프랑스를 제쳤고, 하반기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일본과도 경쟁을 해서 이기면 ‘세계 5위까지’도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숨은 영웅인 한인경제인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한인경제인들을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80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사원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한국벤처투자, 벤처생태계 발전 공로자 포상

‘Korea VC Awards’ 포상 접수

한국벤처투자가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Korea VC Awards 2024’ 포상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27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Korea VC Awards 2024’는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모태펀드 주요 출자자(LP), 벤처캐피탈(VC) 등에 시상하고, 네트워킹을 주선하는 화합의

장이다.

포상 분야는 ▲올해의 VC ▲최우수 심사역 ▲최우수 펀드 ▲최우수 관리인력 ▲올해의 투자기업의 5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상,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표창 등 12 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VC’와 ‘최우수 심사역’ 분야 수상자에게는 출자확약서(LOC), 출자자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모태펀드 출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늘렸다. /김승호 기자



대동이 튀르키예에서 로드쇼를 열고 카이오티 브랜드를 공식 런칭하는 동시에 딜러 모집을 시작했다.

대동, 튀르키예 중심 유럽 추가공략 나서

콘야 농업 박람회서 ‘카이오티’ 런칭

대동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유럽 추가 공략에 나선다. 대동은 올해 상반기에 브루사(Brusa) 전시회, 아그로 엑스포(AGRO EXPO) 등과 함께 튀르키예 3대 농업 박람회 중 하나인 ‘2024 콘야 농업 박람회 (Konya Agriculture 2024)’에 참가해 ‘카이오티(KIOTTI)’ 브랜드를 공식 런칭하고 딜러 모집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튀르키예는 트랙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시장으로, 지난 2020년 약 5만 4000대에서 2022년에는 약 6만8000대

로 25%가량 판매가 늘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30년까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동은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말 튀르키예 아탈(Aral) 그룹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에 약 3500억원 규모의 트랙터(20~140마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동은 카이오티의 빠른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해 강점인 제품 품질과 성능에 대한 입소문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카이오티 로드쇼를 이달 4일과 5일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농업 핵심도시 콘야 지역에서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 D2SF, 美 실리콘밸리서 ‘밋업’

북미 스타트업 투자유치 나서

네이버 D2SF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투자자 및 북미 스타트업과 만나는 ‘밋업(meet up)’을 가졌다. 밋업은 투자자 유치 및 홍보, 아이템 설명, 토론회 및 Q&A를 갖는 자리다.

27일 네이버에 따르면 D2SF는 네이버의 CV(Corporate Venturing, 기업벤처링)를 목표로 2015년 출범 이후 110개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왔다. 투자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1700여 팀의 스타트업과 네이버의 각 조직을 연결했고, 210여 건의 협력 아젠다 도출했다.

이번 밋업을 발판 삼아 네이버 D2SF는 북미 현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 나서 네이버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의 시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현지 기업·투자자·창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미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 한국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을 적극 도움으로써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나선 방침이다.

네이버 D2SF 양상환 센터장은 “AI, 로봇틱스 등 다양한 기술 도메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더욱이 보수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필수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지금까지 네이버가 만들어온 글로벌 사업 및 기술 성과를 토대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국경을 뛰어넘어 네이버와 스타트업의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GBA코리아와 수출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GBA코리아와 ‘장애인기업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지원센터는 시장개척단, 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GBA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BA는 65개국 CEO·외교관·상무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비즈니스 매칭데이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